

도서관은 지금!

- 급변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도서관을 외치다 -



글 | 최 영 순

외교통상부 국립외교원 도서관장
yschoi80@mofat.go.kr

대회 시작전 - 출발 그리고 대회 참가등록

2012년 3월은 필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적합한 인재양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국립외교원(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으로 재개편되었다. 건물내 기존시설들이 변경되는 가운데에 우리 도서관의 리모델링 작업이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어 7월까지 정신없이 그 일에 매달리느라 솔찍히 출장 신청만 간신히 해놓고 미처 신경쓸 겨를이 없어 간담회 날짜마저 잊어버렸다. 출장 떠나기 목전에야 가까스로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우송으로 받은 간담회 자료를 챙겨보면서 2012헬싱키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 중에 참석할 회의 일정표도 짜고 IFLA홈페이지에서 필요한 해당자료도 다운받았다.

인천-헬싱키간 비행시간은 대략 9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비록 비행시간은 긴 편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항공편인 핀에어는 직항노선이라 중간에 갈아 탈 경우 낭비할 시간과 체력적 부담감이 없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또 하나, 외국항공사업에도 한국인 승무원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도착 당일 컨벤션센터로 이동하여 미리 대회 참가등록을 마쳤다. 방문도서관 신청은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인지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일 일정은 핀란드국립도서관 공식 방문이 오전에 있을 예정이고 오후 늦은 시간에 WLIC 한국어 참가자 모임이 있고 저녁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인의 밤 모임도 있어서 다른 루트로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참가자를 만날 기대감으로 잠시 설레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아자아자 파이팅!

주제발표 회의 참석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In search of inspiring perspectives on national information and library policy)

한국이 2010년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회의 기간 중 도서관 정보관련 정책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후 2011년 산후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특별관심그룹 예비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그 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Special Interest Group, SIG) 설치를 최종 승인했으며, 이번 회의가 승인 후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주제로 NILP SIG 자문위원인 윈스턴 로버트(Winston Robert)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수석고문이 진행을 맡았으며, 브루노 라신(Bruno Racine)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장이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유산 디지털화를 위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초발표를 하였고 한국의 정은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주요국 도서관 정보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특별발표가 있었다. 또한 캐롤 프리슬리(Carol Priestley) 영국 디지털정보접근향상을 위한 네트워크(NIDA) 소장, 바브린 위젤 리나넨(Barbro Wigell-Ryynanen) 핀란드 교육문화부 고문, 미셸 파렐(Michele Farrell)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MLS) 수석 프로그램담당관 등의 국가도서관 정책개발 사례와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정은경 교수는 향후 NILP SIG를 국제적인 회의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배경을 가진 국가들과 SIG내 분과를 조직, 활성화하여 각국의 사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단계별로 NILP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국가도서관 분과

(National libraries and open data : new discovery and access services : National Libraries)

국가도서관과 오픈데이터 관련 새로운 발견과 접근서비스에 대해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및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서 추진해 온 사례 및 최근 계획에 대해 차례로 발표하였다.

과거에는 오픈데이터를 서지데이터 형태로 출판했지만 최근에는 시맨틱 웹을 이용, 소셜 네트워크, 포탈, 검색 엔진과 같은 전형적인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찾고자 하는 자료들의 연관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링크드 오픈데이터(Linked Open Data, LOD)와 시맨틱 웹내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오픈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도서관은 도서관과 가장 연관이 밀접한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 이용자들을 위한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실제 오픈데이터 공개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용사례와 간단한 사실(facts)을 보여주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기대되는 이점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전략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플리커,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와 메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가 도서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데이터와 LOD로 메타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서관 분과, 정부출판물 분과

(The surprising world of government libraries: trends and prospect of new user services - Government Libraries, 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s, Law Libraries with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미국내 디지털 판례법 접근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부분에서 판례법이 특별한 형태의 정부정보인데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쉽지 않고 포괄적인 디지털 열람시스템이 부족한 현실에서 판례법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사서와 법률 사서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리스 정부도서관은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컨소시엄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목록 및 협정을 통한 협력장서 형태로 운영하면서 정부 도서관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핀란드 정부도서관은 개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12개 정부 부처내 1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역할과 정보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2012년 10월 말경 마무리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한다. 정부도서관을 재조직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직, 서비스, 부지, 장서를 공유하는 도서관(common library)도 검토 방안의 하나라고 한다.

도서관 견학

우리 대표단 귀국 일정관계로 헬싱키대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공식방문은 아쉽게도 8월 17일(금) 오전 방문이 가능한 12개 도서관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에 필자는 헬싱키대학교 도서관 방문을 신청했다. 원래 헬싱키대학교 도서관은 4개(시티센터대학교 도서관, 쿨플라대학교 도서관, 메일라티대학교 도서관, 비익기대학교 도서관)의 대학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시티센터대학 도서관은 2010년 착공하여 2012년 9월 3일 개관 예정인 카이사니에미에

카이사관으로의 이전 작업을 위해 여름기간 동안 폐쇄되어 이용이 가능한 시티센터대학교 도서관 산하 행동과학부(City Center Campus Library-Behavioural Sciences) 도서관과 Soc&kom 학습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행동과학부 도서관을 “Minerva”라고 부른 장서이용은 헬싱키대학교 도서관 공동 온라인 목록인 헬카(HELK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자료 대출시 헬카 카드 또는 대학에서 발급한 헬카 바코드가 인쇄된 카드가 필요하다. 열람석은 80여석의 규모이고 특히 개인별로 제공되는 북캐리지(book carriages)가 인상적이었는데 이용자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우연히 자료검색을 위해 설치된 PC를 보다가 삼성컴퓨터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괜히 뿌듯한 마음에 같이 견학하던 다른나라 사서에게 자랑할 만큼 기분이 좋았다. 해외에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저널리즘, 사회학, 사회심리, 정치학, 법 등 사회과학분야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Soc&kom 학습센터(Learning Centre at Swedish School of Social Science)로 참고도서, 지정도서 열람용 사본, Finno-Swedish 신문, Scandinavian 저널, 학사학위 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주로 스웨덴 언어로 된 자료가 대부분이고 일부 영어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이용자는 교사, 연구자, SSKH 및 헬싱키대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열람석 규모는 20여석이고 헬싱키대학 컴퓨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컴퓨터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었다.



▲ 북캐리지 진열 앞 모습



▲ 북캐리지 내부 모습

전시회 등 행사관련 이야기

8월 12일 오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식이 선언됨으로써 공식적인 회의일정이 시작되었다. 20여분이나 늦게 시작하는데 행사진행 내용도 전형적인 학술세미나 느낌이 나서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일부 참가자들은 살짝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핀란드 전통문화에 대한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오후 4시부터 전시회 개막과 더불어 오프닝 파티가 열렸으며 참가자는 15일까지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100여개 도서관과 3M을 위시한 세계 유수의 정보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또한, 전시회 행사장 곳곳에 각국 도서관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포스터세션 행사가 이틀간 진행되었다.

196개의 포스터 전시와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의 수상은 독일의 'Prison Libraries New!' 에게 돌아갔으며, 한국은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 구현과 오픈 액세스의 실현을 위해 귀중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의 노력과 작업과정 및 성과에 대해 박재섭 도서관장이 직접 발표하였다.

2013년 싱가포르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기약하며

개최지인 핀란드는 공용어가 스웨덴어와 핀란드어이지만 공식석상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영어 사용도 가능해서 큰 불편은 없다고 들었는데 거리 표지판이나 지명 표기가 공용어로만 병기되어 있어서 읽기도 어렵고 발음도 하기 너무 힘들어서 처음 전시컨벤션센터를 오가기 위해 트롬을 승차하거나 하차시 스트레스를 꽤 받았다. 내년에는 거리상으로도 훨씬 가깝고 영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언어의 장벽은 극복하기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늘날 도서관의 역할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도서관과 사서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변화를 수용해 도서관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보고, 고민한 내용들을 공론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단 규모에 비해 각종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가 적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도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적으로 실무에 종사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세션 발표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자들을 많이 양성해내면 국제 도서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이 질적으로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